

며 톱레벨의 네트워크를 쌓아갔고. 두 남매의 ‘꿈과 실천력’이 우리 문화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 알린 공은 인정해야 한다고 봐.

선대의 훌륭한 기업인들이 가진 원대한 비전과 흘린 땀으로 세계 일류의 조선회사, 철강회사, 전자회사를 만들고, 이제 문화강국으로도 도약하는 것 아니겠어?

자네라고 못할 게 있나? 돈 버는 기계가 되지 말고, 명분 있는 큰 비전을 가지고 한판 벌여보게.

사업을 한다는 게 산 넘어 산이지.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. 그렇지만 그걸 헤쳐나가는 게 비즈니스의 보람이자 재미 아니겠어? 내가 만난 성공한 기업인의 공통점은 긍정적이라는 거야. 옆에서 보면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순간에도 꿈이 있으니 또 앞을 향해 나아가더라고.

그나저나 정주영 회장이 즐겨 하시던 말씀이 뭔지 알아?

“임자, 해보기는 했어?”

이게 바로 BHAG 정신이야.